

IBKS Spot Comment

화학/정유

이동욱

02) 6915-5671

treestump@ibks.com

[화학/정유]

중국 독립계 정유업체들의 경쟁력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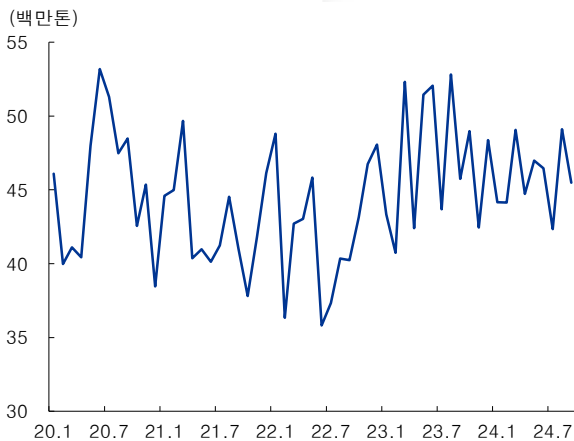
일부 중국 티팟 업체, 파산 선고

중국 정유업체 특히 Shandong 지방의 소규모 독립계 정유사(이하 티팟)들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지난달 중순에도 중국 Shandong 소재 정유회사 2곳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선고받았다. Shandong Huaxiong Petrochemical Group, Zhenghe Group 2곳의 채권자들이 두 기업의 회생절차에 합의하는데 실패하면서 최종 파산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지난 7월에는 Sinochem 산하 정제시설 2곳(Zhenghe, Changyi)가 고유가와 부진한 중국 석유제품 수요 등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였다. 이에 올해 40만 B/D 신규 정제설비(Yulong Petrochemical)의 가동에도 불구하고, 티팟 설비들의 설비 폐쇄 움직임으로 중국 정제설비 공급 순증은 제한되고 있다.

최근 티팟 업체들의 상황이 급격히 힘들어진 요인

중국 티팟 업체들의 상황이 최근 급격히 어려워진 이유는 1) 중국 석유제품 수요 둔화로 올해 2~3분기 실적이 크게 둔화되었고, 2) 중국 정부의 중유와 역청유의 세율 인상 움직임이 원유 수입 쿼터의 적용 대상인 독립계 정유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 중동 이슈로 이란산 원유 도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존에는 중유와 역청유를 통해 휘발유/경유를 생산할 경우 95%의 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60% 수준으로 감소하며, 중국 티팟 설비는 톤당 \$60의 추가 원가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 정도 수준의 비용 상승은 중유/역청유가 원유의 대체재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림 1. 중국 원유 수입량 추이



자료: NPS, IBK투자증권

그림 2. 중국 Shandong 티팟 설비 가동률 추이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